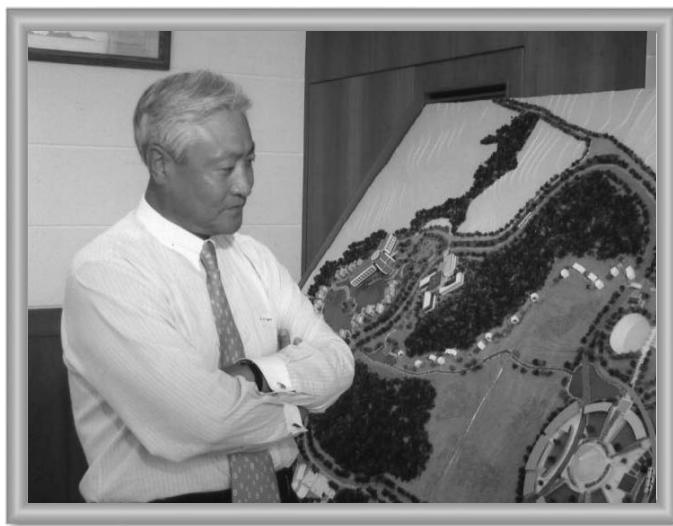


탐라사료(주)



▲ 탐라사료(주) 공장 전경

“사료를 판매하는 회사가 아니고 고기를 판매하는 회사”



▲ 윤태현 회장

창립 18여년의 역사를 이어오면 서 청정 제주축산의 선도적인 역할을 다하며 제주축산을 주도해오고 있는 탐라사료. 지속적인 성장을 꾀하기 위해 끊임없이 신제품개발에 매진해오고 있으며 단순히 사료를 생산하고 판매한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제주축산이 가장 경쟁력 있는 제주를 대표하는 산업으로 육성하는데 온 역량을 경주하고 있는 탐라사료. 탐라사료의 힘, 그 근원을 찾아 제주로 찾아가 본다.



제주도 유일의 중견기업

1989년 설립된 탐라사료는 양질의 고급원료만을 사용하여 총도야지 양돈사료 25품목, 마니나라, 하이크라 양계사료 12품목, 한라장사 브랜드 축우사료 8품목 등 45개 품목과 말사료 2품목, 개사료 3품목을 생산하는 제주도 유일의 중견기업이다. 현재 원료저장시설 5,635톤, 제품저장시설 1,280톤의 규모로 성장시킨 탐라사료는 자동계근시설을 비롯한 로봇자동포장 시설을 완료함으로서 중소제조업체의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배합사료제조공정은 전처리가 프로그램화되어 있으며 제주도라는 지역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국내 유일의 가장 신선한 사료를 사양가에 직접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이루었다. 여기에는 익스팬더 첨단가공시설과 자체 랜더링가공을 통한 신선한 사료의 제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제주도 축산업이 세계속의 산업으로 발전하는데 선도적 역할 기여, 전문기술의 개발과



보급, 사료의 생산과 판매, 경영기술의 향상과 혁신적 유통구조 개선, 사양가의 수익창출 및 회사와 사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기업의 이념으로 현재 55명의 지역민 고용창출과 더불어 주 5일제 근무를 통한 자율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등 제주도중소기업의 선도적 역할을 다해오고 있다.

제주축산업, 세계속의 산업으로..

오직 축산 하나만을 고집하며 사업을 펼쳐온 탐라사료는 사료제조, 판매에서 더 나아가 21세기 고부가가치산업으로의 도약을 위해 끊임없이 미래도전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사료제조, 종돈공급, 유통, 육가공 및 판매, 해운, 관광사업에 이르기까지 1차 산업과 연계한 동물테마파크사업 추진 등 3차 산업으로의 비약적인 발전을 꾀하고 있다.

특히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94년 12월 제주도 북제주군 애월읍 어음리 2513-2에 첫 공장을 세우고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탐라유통은 우수종돈의 개량과 보급, 과학적인 사양관리를 통한 비육돈 계열화사업과 육가공, 부산물처리, 유통판매, 대일돈육수출에 이르기까지 계열화사업을 추진하는 종합축산전문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여기에 세계속의 상품인 ‘한라산도야지’는 이미 200여개의 가맹점에서 소비자들에게 그 맛을 인정받고 있고, 일본에까지 절찬리에 수출되고 있으며, 제주도지사가 인정하는 FCG 마크(제주형 안전 축산물 생산관리 제도)로써 맑은 공기, 깨끗한 물, 푸른 초원을 나타내는 무공해 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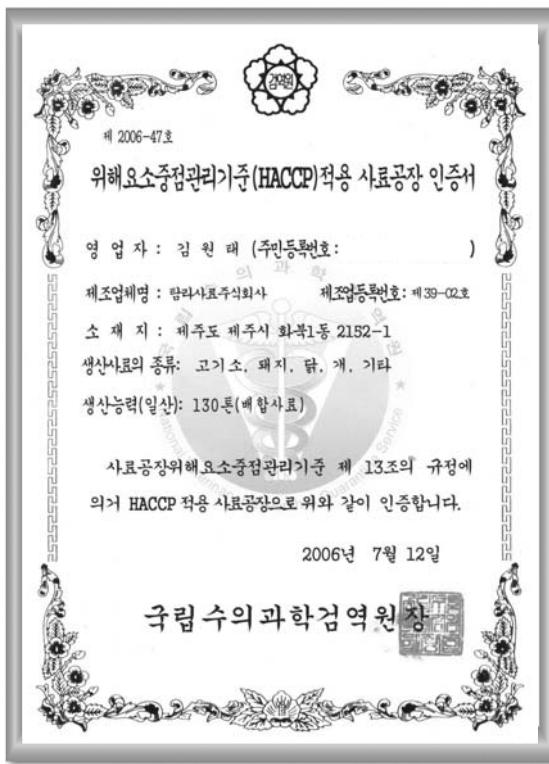
정 제주산 특산물의 대명사)와 HACCP 인증획득, 농림부 Q마크 획득 등을 통하여 2003년 농림부 주최 제1회 축산물 브랜드전에서 당당히 우수상을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다.

탐라사료와 탐라유통 모든 가족은 우리나라 1차산업의 침체와 더불어 농산물 수입개방 기중 등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료생산에서부터 양돈, 도축, 가공, 유통에 이르기까지 제주 최초의 종합축산회사로서의 체계를 완성하여 제주축산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림으로써, 축산업 발전과 나아가 국민 식생활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음을 확신하고 또한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업무에 충실을 다하고 있다.

기업고유의 노사문화 정착을 통한 기업이윤의 사회환원

제주경영자총협회장을 겸임하고 있는 윤태현 회장을 비롯한 탐라가족 전임직원은 끊임없는 미래 도전, 바로 탐라의 개척정신과 더불어 정직한 윤리경영에 입각하여 가족적인 노사관계를 실천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 건의 노사분규도 없이 기업경영을 해올 수 있었던 것은 최고경영자의 도덕적인 양심과 투명한 기업경영, 그리고 종업원의 아낌없는 애사심이 어우러져 가장 바람직한 노사문화를 정착시켜 오고 있음이 아닌가 싶다. 바람직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서 회사는 아낌없는 지원과 제조의 정비, 복리후생의 지원 등에 모든 역량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근로자는 주인의식을 갖고 모두가 주주라는 관점에서 업무에 매진하고 있다.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고유한 노사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는 탐라사료, 탐라만이 할





수 있는 저력이며 큰 장점이라 하겠다.

이러한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와 노사안정을 통하여 탐라는 지역사회 기여를 위해서도 끊임 없이 노력하고 있다.

매년 불우이웃돕기 성금 지원, 독거노인 및 장애인 지원, 신규사업을 통한 지역주민 고용창출, 수재의연금지원, 기타 천재지변에 의한 성금 기탁 등 제주지역을 위한 그 기여도는 탐라의 성장과 연동되어 펼쳐지고 있다.

전략적 발전방향

탐라사료는 그동안 쌓아온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1차산업과 3차산업이 연계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고자 (주)제주동물테마파크를 설

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따른 워크샵 개최



립하여 제주도 1차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꾀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와 노사안정 그리고 기업이윤의 사회환원을 통해 올바른 기업가치관과 정신을 구현하고 있다.

가장 제주다운 산업으로 제주인에 의해서 제주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주)제주동물테마파크는 오직 축산만을 외길로 걸어온 탐라사료의 야심찬 발전 계획의 하나다. 제주도 1차산업 회생을 위해서 1차 산업과 3차 산업이 연계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성장발전 시키기 위해 탐라가 주도하는 신규사업은 1차산업인 감귤산업과 양돈산업을 주축으로 3차산업과의 연계발전 할 수 있도록 해나갈 방침이다.

□ 탐라사료의 전략적 발전방향 및 계획

- 가장 제주다운 사업 전개 : 제주동물테마파크 완성(2007년)
- 지속적인 신제품 개발 : 각 축종별 경제적인 사료 개발(연간 2품목)
- 지역경제 기여와 사회에의 공헌 : 기업이윤의 사회환원(불우이웃돕기성금기탁)
- 공장 완전자동화 실현 : 생산성향상 및 업무효율 향상(게르시스템 자동화)
- 사원복리후생 증진 : 주 5일제, 개인능력 배양

제주도 축산업의 세계화를 이룩하기 위해 지금도 끊임없이 경주하고 있는 탐라사료. 제주도의 지역적 발전을 탐라사료에 기대해본다.